

# 주장사파라...

12 영암 스님의 태권도



조태호



영암 스님(1907~1987): 경복 울진 생. 봉도사로 출가. 백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4대). 종회의장 동국학원 이사장 등을 거치며 이사 구별없는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

가비라성에 있는 변우(編友)라고 하는 동자의 스승(童子師)을 찾아가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천주광녀(天主光女)의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천궁에서 내려와 가비라성을 찾아갔다. 변우가 있는 곳에 나아가 그에게 예배하고 나서 법을 청하자, 변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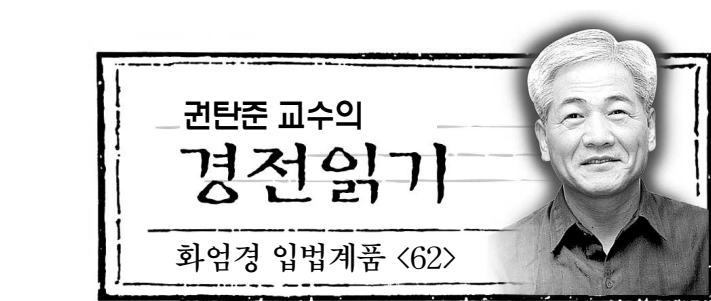
“선남자여, 여기에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이 선지중예(善知衆業)이다. 보살의 문자에 관한 지식(菩薩字智)을 배웠으니, 그대가 물으면 말하여 줄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우는 자신의 법문을 하지 않고 법을 청하는 선재동자에게 곧바로 ‘선지중예’라고 하는 동자를 찾아가라고 지시한다. 변우동자는 이와 같이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선지식이다. 변우라고 하는 명칭은 두루 모든 중생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기 때문인데, 변우는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우는 순수한 구도자인 동자의 스승(童子師)으로서 훌륭한 선지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중생의 훌륭한 친구가 되고, 좋은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어 제자들이 세상 사 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변우동자가 일러준대로 선지중예동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자, 선지중예동자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그 이름은 ‘모든 예술을 잘 알(善知衆業)’이다. 나는 항상 이 자모(字母)를 독송한다. 아나, 아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반야)이 들어간니 그 이름은 ‘보살의 위력(威力)으로 차별이 없는



## 권태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2>

### 변우동자사와 선지중예동자의 법문

### ‘변우’ 중생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정법교화

### 예술적 재능 통달해 지혜 실현하는 ‘선지중예’

경계에 들어감’이다. 다(다, 多) 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반야)이 들어간니 그 이름은 ‘그치지 않는 차별한 문’이다. ... 라(라, 羅) 자 음(音)을 소리낼 때는 반야바라밀다문(반야)이 들어간니 그 이름은 ‘모든 법문의 차별한 광’이다. 선남자여, 내가 이런 자모를 부를 때에 이 사십이(四十二) 반야바라밀다문을 으뜸으로 삼아 한량없고 수없는 반야바라밀다문(반야)이 들어간다.”

지금 선지중예동자가 설하고 있는 선지중예해탈의 법문은 알고 이해해야 할 세간의 온갖 재능과 기술 중에서 특히 문자(文字)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혜를 발휘하여 세속의 언어와 문자를 이용해서 세속을 벗어난 출세간의 반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가 비록 허망(空)하다고 하지만,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진실한 경계를 나타

낼 수도 있고 인간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세속의 여러가지 재능과 기술을 통달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여 보살의 깨달음의 경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이 밖에도 무시하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지중예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보살의 해탈을 알 뿐이다. 저 보살 마하살들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교묘한 법을 지혜로 통달하여 저 언덕에 이르며, 다른 지방의 이상한 예술을 모두 종합하여 다 알고, 글과 산수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의학과 술법으로 여러가지 병을 잘 치료하며, 어떤 중생들이 귀신들리거나 원수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나쁜 법의 번고를 입었거나 송장에 달라붙는 악귀에 쫓기거나 간질·조갈 따위의

병에 걸린 것을 모두 구원하여 쾌차하게 하는 일과 또한 금·옥·진주·보배·산호·유리·마니 등의 보배가 나는 처소와 종류가 갈지 않음과 값이 얼마나 가지를 잘 분별하여 일과, 마을이나 시골이나 성이나 크고 작은 도시들과 궁전·공원·바위·샘물·숲·진흙 등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데를 보살이 모두 다 지방을 따라 거두어 보호하는 일과 또한 천문·지리와 사람의 상(相)의 길흉과 새·짐승의 음성을 잘 관찰하며, 구름·안개의 기후로 시절의 흥년·풍년과 국토의 태평하고 나쁜 것을 짐작하는 일과 이러한 세간의 모든 기술을 모두 잘 알아 근원까지 통달하는 일과, 또한 세간에서 뛰어난 법을 분별하며, 이름은 바로 알고 이치를 해석하며 본체와 모양을 관찰하고 따라 수행하며, 지혜로 속속들이 들어 가 의심도 없고 결림도 없고 어리석지도 않고 고집스럽지도 않고 근심과 침울함도 없이 현재에 증득하지 못할이 없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세속적인 재능과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여러가지 일들이 보살이 통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속의 여러가지 중생의 삶과 관련되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여러가지로 이로운움을 줌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의 지혜 광명의 묘한 작용은 이렇게 작용해서 중생세계에 구체적인 여래출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티즌 교리문답

###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까닭은?

**문** 부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일곱 발뺨을 걸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天下唯我獨尊)’이라는 계승을 외쳤다고 하는데, 이 계승은 무슨 뜻인가요? 부처님이 잘난 척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요. (ID ‘무위자연’)

**답1:** 마음은 본래 생함이 없는 것이며, 본래 무생(無生)인 지라 멸함도 없다. 마음은 본래 무상(無相)인 지라 생멸의 상을 떠나 있다. 바로 그러한 심성이 진여이고 법성이며 불성이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한 ‘아’는 무아(無我)의 ‘참나’ 이기에 마음이 무부처(無佛), 공(空), 법(法)이기에 우주와 둘이 아닌 ‘일심(一心) 일뿐’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ID ‘김성우’)

**답2:**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이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부처님의 탄생이 속세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ID ‘부친시민’)

**답3:** 이 탄생은 존재의 원리인 중도연기, 무아의 연기를 말한다. 불교의 존재원리는 나 온 출처가 애초에 없음을 가리킨다. 바로 ‘유아독존’의 아(我)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불변하는 중도연기를 의미한다. (ID ‘이빛고’)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36

### 불립문자(不立文字)-9

앞의 글에서, 글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는 의식을 분절화시키고 타자화하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불이적(不二的)인, 즉 통합적인 세계관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고전종교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을 표명하고 전달하고 달성하는 데에 글이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글뿐만 아니라 말도 그다지 마땅한 것은 아니다. 인간 정신의 내면적인 체험, 특히 세상 만유의 궁극적인 통합성에 대한 의식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데에는 말 또한 기본적으로는 글이 지나는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선, 전에도 언급했듯이 말도 사상(事象)의 분별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

급된 귀는 당나라 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 그것을 발설하지 못해서 병이 난 이발사 얘기도 있다. 그래서 도무지 말로는 적절하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내면의 체험도 어떻게든 말에 담아내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발설된 말은 이미 말한 사람의 바깥으로 달아나가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事象)이 된다. 내면의 체험이 외면화해서 타자화(他者化), 객체화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말과 글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한 사람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독자적인 객체로서 그 말이 다가온다. 말한 사람의 의도나 내면의 체험과는 별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심지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일도 생긴다.

###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통 ‘독자성’ 갖는 글보다 오해 덜해

하지만 그래도 말은 글에 비하면 부작용이 좀 덜하다. 말이 오가는 현장에는 사람이 과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글을 읽는 현장에서는 글과 읽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글을 쓴 사람은 없다.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아니라 글과 사람의 대면이다. 글을 그것은 쓴 사람의 밖에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객체이다. 그러나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떠나 별도로 독자성을 가지는 정도가 글보다 훨씬 덜하다. 말을 주고받는 현장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 문이다. 고전 사상과 종교의 태두들이 평상 말들은 무척 많이 했으면서도 글은 남기지 않은 것도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세간의 상식적인 틀에 가둘 수 없는 내면의 불이적인 체험이지만 어차피 표현하고 전달은 해야 하겠지만, 글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기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다.

■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 가로

1. 좌선을 주로 하는 도량
5. 말씨 7. 정신이 한곳으로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경지 8. 사찰이나 종단에서 보는 행장일부 9.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성면 정족산성 안에 있는 사찰 11. A와 B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모두 쓰는 집합 13. 일본에 국권을 강탈당한 치욕적인 날 14. 채광이나 통풍을 위하여 벽에 낸 작은 문 15. 자그마한 산 16. 사철로 외국에 가는 일단 19. 품질을 평가하는 모인 21. 작도나 구획 등의 작업에서 기준이 되는 점 23. 수요가 많은 종류라는 의미 24.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 26. 붉은 삼살로 판 포대 27. 담낭이나 담관에 생기는 결석.

### 세로

1. 먼저 해야 할 일 2.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 3. 토라이나 선전 따위로 상대편의 신경을 피로하게 만들어 혼란으로 몰아넣는 전법 4. 조계종에서 비구 법계의 1급을 이르는 말 5. 말과 행동이 똑같은 6. 그릇됨과 올바름 10. 등기우편의 준말 13.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 17.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를 말함 18. 사물의 가치·등급·품질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20.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의하는 모인 21. 피곤할 때에 몸을 쭉고 팔다리를 뻗는 것 22. 점유하고 있는 물건 23.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부분까지의 사이 25. 사사로운 지리.